

## 이병주 문학에 나타난 교양주의적 세계시민주의

추 선 진\*

### 차 례

- |   |                                      |
|---|--------------------------------------|
| 1. 서론   | 3. 세계시민주의자의 형태 - 『미완의 극』             |
| 2. 교양으로서의 세계 (재)발견 -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 4. 휴머니즘적 공동체 구상 - 『허드슨강이 말하는 강변 이야기』 |
|   | 5. 결론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냉전시대 세계시민주의의 한 양상으로서 이병주 문학을 조명한다. 이병주는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을 지향한다. 그러한 이병주의 지향은 보편적인 인류애에 기반한 교양주의적 세계시민주의로 구체화된다. 이병주의 세계 기행문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과 장편 소설 『미완의 극』, 『허드슨강이 말하는 강변 이야기』에는 세계를 지향했던 교양주의자 이병주의 시선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의 세계시민주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의는 교양주의자로서 당연한 결과물이었으나 이데올로기 문제로 극심한 피로 상태에 놓여 있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주장을 내세운 작가는 별로 없었다. 그는 자신이 바라보았던 세계가 서구에 국한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반성한다. 또한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세계가 더 이상 분쟁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으며, 이에 제기될 수 있는 과거의 역사로 인해 발생한 복수의 문제와 인종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고민과 해결, 그에 따른 구체적 구상은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미완의 극』, 『허드슨강이 말하는 강변 이야기』로 표상된다.

주제어 : 이병주, 세계기행문, 교양주의, 세계시민주의, 휴머니즘, 이데올로기

## 1. 서론

이병주<sup>1)</sup>는 냉전시대에 세계(공동체)를 상상한 작가다. 그에게 이데올로기보다 앞서는 것은 휴머니즘이며 내셔널리티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에 속한 시민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반공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공산주의자로 회자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 전쟁과 분단을 경험하고 반공을

1) 이병주(1921~1992)는 1941년 일본 메이지대학 문예과를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 불문과에 진학하였으나 1944년 학병에 동원되어 중퇴하였다. 학병 동원시 중국 소주에 있었다. 1948년 진주농과대학 강사, 1951년 해인대학 교수가 되었다. 1953년 「내일 없는 그 날」을 『부산일보』에 연재하였다. 1955년 『국제신보』 편집국장 및 주필로 활동했으나, 1961년 필화사건으로 혁명재판소에서 10년 선고를 받고 2년 7개월 만에 출감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강의했고, 1965년 중편소설 『소설·알렉산드리아』를 『세대』에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했다.

강력한 정치적 이념으로 내세운 당시의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는 적이며 곧 악인이다. 그러나 이병주가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산주의자이냐의 여부가 아니라 인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냐의 문제다. 『지리산』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내면세계와 그들의 행보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그가 공산주의를 긍정해서도 아니고 반공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도 아니다.

또한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이병주의 입장은 이중적으로 읽힌다.<sup>2)</sup>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관부연락선』에서 이병주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본과 일본인을 바라본다. 일본의 광포한 식민 지배로 인해 고통 받는 조선의 상황을 그려내기도 하지만, 친일 인사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는 않는다.<sup>3)</sup> 공산주의자들을 그려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서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일본과 일본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음을 서슴없이 토로하고 양심적인 일본인들과는 인간적인 유대를 맺는 데에도 거침이 없다.<sup>4)</sup>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간과 사

2) 이정석은 『관부연락선』이 “일제의 착취와 수탈을 소리 높여 고발하거나 선악이 분별에 의해 친일파의 단죄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작품은 민족주의의 담론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망각하고 회피하는 불편한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논리적 도전을 불허하는 완고한 민족주의의 신화에 균열을 야기한다. 물론 『관부연락선』은 일제에 의해 학병에 끌려간 식민지 체험세대의 기록답게 식민지배의 억압성과 그에 대한 저항의 흔적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족담론을 폐기하고 문명사적 관점에서 해방전후사를 바라보자는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을 적잖이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이정석, 『학병세대 작가 이병주를 통해 본 탈식민의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33집, 한중인문학회, 2011, 116쪽.

3) 예컨대 “제국주의 통치국과 식민지 피지배국을 잇는 연락선”으로서 ‘관부연락선’을 조사하는 “유대림”은 “을사보호조약에서 한일합방에 이르는” 식민 지배의 역사 과정에서 “민족적 과오”도 적지 않았음을 반성한다. 김종희, 『이병주 문학의 역사의식 고찰』, 『한국문학논총』 제57집, 한국문학회, 2011, 136쪽.

4) 이병주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민족주의적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가치판단을 한다.

““일본인은 훌륭한 민족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의 놀라는 기색을 보다 경산은

“일본인 가운데도 나쁜 놈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일본인은? 하고 한마디

회를 바라보고 있기에 이러한 시선을 담은 그의 소설을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모호하고 이중적인 해석을 낳게 될 수밖에 없다.<sup>5)</sup>

이병주는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을 지향한다. 그가 주장하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sup>6)</sup>는

로 말해야 한다면 훌륭한 민족이랄 수밖에 없지.”

하는 말을 보냈다.

“일본인의 침략근성을 나쁘지 않습니까?”

나는 힘주어 말했다.

“침략은 나쁘지. 그러나 고래로 강대한 나라치고 침략근성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있어보거나 했나? 침략근성이 있었다고 해서 일본만을 탓할 건 못 되어.”

“그럼, 선생님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겁니까?”

“객관적인 판단과 옹호는 다르지 않은가. 밉다고 해서 판단을 왜곡할 순 없지. 적이긴 하되 일본인은 훌륭해.”

“훌륭하다고 인정했으면 항일투쟁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네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될 텐가? 항일운동은 생존권과 위신의 문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불길과 같은 기염을 예상했던 나는 경산의 이런 말에 적이 실망했지만 날과 더 붙어 교분이 짙어지자 그에게 무궁한 지혜의 샘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으로 되어갔다.”(이병주,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한길사, 2006, 8-9쪽.)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딜레마입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따질 수는 없는 딜레마. 친밀하게 지내야 하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경원하고 싶기도 한 딜레마, 존경해야겠다는 감정과 증오하고 싶은 마음의 딜레마…….”

“일본인 가운데 친한 사람이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인이니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정이 아니요. 친할 수 있는 인간이니까 친하게 된 겁니다.”(이병주,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서당, 1988, 287쪽)

5) “이 세계에서 악과 불행을 없앨 순 없을망정 그 악과 불행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문학의 참된 면목이 있는 것이다. 문학을 통해 배운 눈으로써 보면 산하의 의미를 알고 사랑 할 사람을 사랑 할줄을 안다.”(이병주, 『인간(人間)에의 길』, 『생각을 가다듬고』, 정암, 1985, 82쪽)

6) 세계시민주의는 아직 그 정의에 대한 일치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논쟁적인 개념이다. 세계시민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기원전 4세기 키니코스(Cynicos) 학파의 ‘kosmopolitēs’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키케로, 아우렐리우스 등 스토아 학파가 세계시민주의를 수용하여 발전시켰다. 근대 세계시민주의는 볼테르와 칸트 사

원죄의식이자 트라우마인 학병 체험을 외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sup>7)</sup>으로

상, 프랑스 인권 선언 등에 나타난 계몽주의를 수용하여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였고, 근대 국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역사적 변화를 관통하는 세계시민주의의 핵심 이념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출신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다. 근대 세계시민주의의 개념을 정초한 칸트는 이방인을 적대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시민성을 강조했다. 칸트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교제를 청하고 방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방인을 환대할 의무가 있다. 모든 인간은 지구 표면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은 구면(球面)인 지상에서 무한히 널리 흩어져 살 수는 없고, 결국은 서로 결하여 있는 것을 인내하지 않으면 안”(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영원한 평화』, 아카넷, 2013, 132쪽) 된다고 말하며,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지닌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의 권리와 환대의 윤리를 주장한다.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지구의 어떤 곳에 있을 권리를 타인보다 더 갖지 않는다”(임마누엘 칸트, 앞의 책, 133쪽)는 ‘존재론적 평등성’에 근거한다. 칸트는 이러한 세계시민적 권리와 환대가 국가 간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본다. 급진적인 세계시민주의는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지만, 자유주의적 세계시민주의자인 콰메 엔터니 에피아처럼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콰메 엔터니 에피아, 실천철학연구회 역, 『세계시민주의』, 바이북스, 2008) 이병주는 국가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데올로기적 폭력에 대해선 분명한 비판의 입장을 취한다. 이병주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인도주의적 박애정신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인간에보다 권리를 강조한 칸트와 구별되지만, 인종, 종교, 국적, 성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고 적대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하고, 특히 세계시민주의의 이념과 충돌하는 내셔널리즘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평화주의 정신과 공명한다.

- 7) 세계시민주의는 내셔널리티의 초월을 기반으로 한다. 추선진은 이병주의 세계시민주의 역시 이러한 지향점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전쟁 및 학병 체험에서 찾았다. 이병주에게 학병 체험은 주체가 아닌 노예로서의 경험이자 반휴머니즘의 공간에 피투된 폭력적 사건이었다. “내셔널리즘이 극대화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중국인 살해’를 통해 일본인으로서의 내셔널리티를 각인 받게 되는 폭력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이병주는 조선인으로서의 내셔널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병주가 분열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셔널리티를 초월해야 했다.”(추선진, 『이병주의 『별이 차가운 밤이면』에 나타난 전쟁 체험과 내셔널리티』, 『국제어문』 60집, 국제어문학회, 2014, 38쪽)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가 서구 교양주의에 기반한 일본의 교양주의의 영향 하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물이기도 하다.<sup>8)9)</sup> 물론 일본의 교양주의가 결국 국가주의에 귀속되고 제국인으로서의 세계인, 대동아공영권의 주인으로서의 일본인을 지향하게 되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식민지 지식인 이병주는 이러한 국가주의적 교양주의에 기반한 세계시민주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sup>10)</sup> 오

8) 일본은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 초에 걸쳐 쿠와키 겐요쿠와 소다 키이치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주의가 유행했다. “‘문화주의’라는 말의 ‘문화’란 독일어 Kultur(문화)의 역어이며, 동시대의 독일 지식인들은 정신(Geist)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그 문화를 창조하고 향수할 수 있는 내적 통일을 지닌 ‘인격’의 형성(Bildung)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문화주의는 당대의 독일의 이념을 이입한 것이며, ‘교양’ 계층으로서의 문화인이 만드는 문화를 기초로 하는 문화 국가의 이미지를 통해 메이지 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념을 제창하였다. …… 일본 문화주의는 ‘자아의 자유로운 향상 발전’을 문화의 의미로 이해하였다.”(허병식, 『한국근대소설과 교양의 이념』,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10쪽) 1920년대 조선은 이러한 일본의 문화주의를 받아들여 개성의 본질을 기초로 하여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는 문화주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30년대 후반에도 “유럽적인 교양의 정신”을 체득해야 한다는 교양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병주가 유학했던 시기 일본에서는 고바야시 히데오와 미키 기요시를 주축으로 한 교양주의가 학계를 지배했다. 이처럼 이병주가 출생하고 성장한 시기, 조선과 일본은 모두 교양의 습득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개인과 사회의 근대화를 도모하던 때였다. 이때의 교양은 외국어, 문학, 예술, 철학, 종교, 역사 등을 의미했으며 이미 근대화가 이루어진 서구의 것들을 도입, 학습하였으며 이는 교육 제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이정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930년대의 교양주의는 국적을 초월해 반파시즘의 대의에 동참한 이들 교양 있는 좌파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학병세대는 이렇게 마르크시즘이 철퇴를 맞아 점차 힘을 잃어가고 대신 인민전선의 사상이 영향을 미칠 무렵 일본유학을 경험한 세대다.”, 이정석, 앞의 글, 114쪽.

9) 김윤식은 이병주를 포함한 학병 세대는 입신출세주의 교육 이념과 교양주의 사조를 세대 의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43-51쪽 참조.

10) 이병주는 고등교육을 받은 소수의 지식인으로서 가지는 민족의 책무에 대해 인식했고 일본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다음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히려 이병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반파시즘을 내세웠던 스페인의 좌파 인민전선이었다.<sup>11)</sup> 이들은 네이션을 초월하여 양심적인 작가와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었고 여기서 이병주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설 수 있는 철학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는 세계의 문화를 자아 발전의 자양분으로 습득하면서 네이션을 초월한 인간의 본질과 대면하며 타자를 경험하고 세계시민주의자로서의 자기 내면을 구성해갔다.

역사는 과연 정의의 편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나 스페인의 처지나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은 부조리한 것이 아닌가. 원래 역사가 부조리하고 세상이 부조리한 것이라면 그 부조리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나는 어느덧 기를 쓰고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서두는 친구들을 멀리하고 사상운동을 하려는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그렇다고 해서 도스토예프스키를 읽고, 니체를 읽고 하이네를 읽은 청년이 일본에 아부하여 출세하길 바라는 길을 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코스모폴리탄을 자처하고 나면서부터 망명자라는 감상을 즐겼다. 보기에 따라선 이젠 비겁자의 자기변명, 또는 자기 합리화로 될 것이지만 내겐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았다.<sup>12)</sup>

이병주는 스스로를 세계시민, 코스모폴리탄으로 지칭했다. 스페인 내

---

“한국인으로서 그 당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중략) 해당 연령층을 2백만으로 보고 2천명에 하나 꼴로 고등교육을 받은 셈이지요. 그런 까닭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민족에 대해 큰 책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내용이란 게 엉망입니다. 천황절대주의의 주입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얼마간의 지식과 기술과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그런 수모를 참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병주, 『이래저래 지식인은 고독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앞의 책, 90쪽.

11) “조금 과장된 표현일진 모르나 스페인, 특히 ‘스페인 내란’은 청년 시대의 나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었다.”, 이병주, 『스페인 내전의 비극-1980년 스페인 1』,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앞의 책, 97쪽.

12) 이병주, 『스페인 내전의 비극-1980년 스페인1-』, 앞의 책, 99쪽.

전에서 인민전선은 패배했고 조선의 독립은 요원했다. 그의 코스모폴리탄으로서의 선택은 현실 도피의 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부조리한 역사와 현실 앞에서 희생당하는 인간에 대한 연민, 휴머니즘의 발로 때문이기도 했다.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려는 것이 비겁한지, 자기의 소신을 굽히고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이 비겁한지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요. 나는 지리산 밑에서 자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에서 죽었습니다. 옳건 그르건 소신대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본의 아니게 뇌동하다가 죽은 자로 많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뇌동하다가 죽은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자랐습니다. 나는 뇌동하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랐습니다.”

“지각 없는 대중과 학생은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요. 그러나 뇌동이 되지 않으려면 그 지시를 자기 나름으로 납득하고 따라야 할 줄 압니다.”

“.....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찬란하게 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영웅이 되길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sup>13)</sup>

이병주에게 인과응보의 섭리가 지켜지지 않고 죄 없는 죽음이 난무하는 현실에서의 대안은 휴머니즘에 기반한 세계시민주의였다. 본고에서는 그의 교양주의자로서의 세계 인식이 드러나는 세계기행문집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과 세계시민의 형상이 드러나는 『미완의 극』, 그리고 휴머니즘적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 『허드슨 강이 말하는 강변 이야기』를 통해 교양주의적 세계시민주의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3) 이병주, 『궐부채』, 『소설·알렉산드리아』, 한길사, 2006, 186-187쪽.

## 2. 교양으로서의 세계 (재)발견 -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는 이병주의 첫 세계여행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다. 그는 1971년 2월부터 60일 동안 25개국을 도는 첫 세계여행을 다녀왔으며 이 여행이 “관념으로서의 세계가 구체적인 세계로 변하는 전기”<sup>14)</sup>가 되었다고 서술한다. 교양주의자 이병주에게 첫 세계 여행은 자신을 성장시킨 교양의 실체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이병주는 이 첫 세계 여행을 통해 교양주의의 한계 역시 파악하게 된다. 이 여행은 자신을 재성장시킬 수 있는 교양으로서의 세계를 (재)발견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세계 여행에 대한 기록은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에도 등장한다.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보다 9년 뒤에 발간된 이 책에는 첫 번째 세계 여행의 기억과 자신의 일생이 교차 서술되고 있다. 첫 번째 세계 여행이 교양으로서의 세계를 (재)발견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병주에게 세계는 교양의 터전이다. 세계는 그가 추종했던 소크라테스, 도스토예프스키, 칸트, 니체, 마르크스, 발자크, 지드, 짐멜, 피히테, 룩신, 노만 메일러<sup>15)</sup> 등이 사상과 철학과 문학으로서가 아닌 실존하는 존재로서 삶과 이상을 실현했던 공간이다. 이병주는 그 공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통해 교양의 실체를 발견한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발자크, 덴마크에서는 키에르케고르, 독일에서는 베토벤, 뉴욕에서는 오 헨리, 로마에서는 그 곳에 여행 왔던 도스토예프스키의 행적을 찾는다. 첫 여행이지만, 서구적 교양을 익힌 그에게 세계는 낯선 곳이 아닌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인식된다.

14) 이병주, 『책머리에』,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한진출판사, 1979.

15) 모두 이병주의 글에 거론된 인물들이며, 이병주는 이들의 문학,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세계의 교양을 섭렵하여 세계시민이 되고자 하는 이병주의 교양주의는 세계가 아닌 유럽의 것이었다.<sup>16)</sup> 이병주는 1971년 로마에서 자신의 교양주의의 한계를 인식했음을 밝히고 있다.<sup>17)</sup>

일곱 살 때 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로마에 앉아 생각하면 이 때부터 나의 유럽화가 시작되었다. 일본인은 일본식 교육을 시작한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때 일본인은 그들의 방식을 통해 결국은 나를 유럽화시킬 작업을 시작한 셈이 된다. (중략)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수학, 특히 기하학을 배우으로써 나의 유럽화는 촉진되었다. 잘 배우고 못 배우고는 문제가 아니다.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 기하학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럽화였다. 일본인은 황민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 기실 유럽인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가 일본인의 황민교육에 반발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 탓이겠지만 그 근본엔 유럽화된 의식이 있었다. 예컨대 일본인의 우리에게 대한 황민화교육은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는 것이다. 불합리, 부조리는 유럽의 관념이다. 동양의 사상에도 불합리, 부조리의 관념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불합리하다, 또는 부조리이다 하고 사고하며 판단할 때 유럽적인 관념으로써 한다. 민족의 의식도 우리는 유럽적인 관념을 통해 스스로 납득하고 표현한다.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적인 모든 이상이 유럽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럽적인 검증에 합격해야만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근대

16) 예컨대 이병주는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 문학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다는 기록은 불분명하지만, 방대한 독서로 프랑스 문학을 탐독하며 한국문학의 '발자크'가 되겠다는 야심을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안경환, 『이병주와 황용주-작가의 특권과 특전』, 김윤식·김중희, 『이병주 문학의 역사와 사회 인식』, 바이북스, 2017, 163-164쪽.

17) 1979년 발간한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의 책머리에서 이병주는 1972년 2월 처음으로 세계 여행을 했다고 기록한다. 그런데 이 책의 71면 인도네시아 방문기, 『수카르노의 유령 <인도네시아>』에는 “내가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것은 1971년 4월 2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시기에 방문한 로마에서의 기억은 1988년에 출판한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에만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 이병주는 로마에 1971년 4월에 왔다고 기록한다. 책머리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화란 유럽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관념상으론 유럽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유럽인이 되고서야 동양에의 회귀를 생각하게 되었다. (중략)

동양의 웅장한 지적 풍경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선 유럽인이 고안한 망원경을 빌어야 하고, 동양의 그 치밀한 정신의 무늬를 미시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선 역시 유럽인이 창안하여 만든 현미경을 빌어야 하는 것이다. (중략)

한 마디로 말해 우리는 유럽인이 되지 못하고선 유럽의 민주주의를 배울 수 없다.

우리는 아직 어설픈 유럽인이다.

자신은 세계인이 아닌 유럽인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식은 유럽과 유럽 외의 지역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유럽에서는 향수와 애상을 느낀다면 그 외 지역에서는 지식인다운 분석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교양을 습득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어설피지만 유럽인인 이병주에게 새로운 교양이 되어야 할 곳은 유럽이 아닌 유럽 외의 지역이다.

몽마르뜨르를 걸어 오른다는 건 발작의 소설 속을 거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략) 하여간 몽마르뜨르에서 고향을 느낀다는 것은 먼 옛날부터 파리에의 애착을 가꾸어왔던 탓이다.<sup>18)</sup>

서울을 알기 전에 나는 파리를 알았다. 덕수궁, 창덕궁을 알기 전에 나는 베르사유와 폰텐블로를 알았다.

빅토르 위고를 통해 파리의 하수도를 구경했고, 아나톨 프랑스와 더불어 세느 강변의 흰 책방을 뒤졌고, 발자크의 등장인물들과 어울려 파리의 거리거리를 헤맸다.

이처럼 나와 파리와의 인연은 10대에 시작되었는데, 40세가 넘어 서울에 살게 되면서부터 나와 서울의 인연은 맺어졌다. 그런 까닭에 만일 나 자신의 기록을 쓴다면, 그리고 그 기록이 나의 의식을 점유한 밀도와 분량에 충실하려면 적어도 3분의 1 부분이 파리에 관한 기록으로 채워

18) 이병주, 『회한의 몽마르뜨르』,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앞의 책, 29쪽.

져야 할 것이다.<sup>19)</sup>

우리 한국인은 로마와 무관하게 생로병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그렇다면 로마는 우리에게 있어 이방이 아닌가. 나는 한갓 관광객이 아닌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비어런처럼

『오오, 로마여! 나의 고국, 나의 영혼의 도읍이여!』

하고 외칠 순 없을망정 로마를 이방으로 치기엔 너무나 많은 동경이 나의 가슴 속에 응어리를 새기고 있는 것이다.<sup>20)</sup>

브라질에서는 일본의 저력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후진국의 정치에 대한 비판하고 분석한다. 여기에서 후진국에는 한국도 해당된다. 이병주는 한국과 가나와 알제리아, 인도네시아를 평행선상에 놓고 독재와 비극적 실각을 경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유럽이 아닌 곳에서의 이병주의 태도는 탐구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자신의 교양에 대한 반성적 입장에 서기도 한다. 그가 추종하는 니체가 안테스를 보았더라면 그의 철학을 수정했을 것이라고 하거나 자신이 읽어 온 책이 엉터리일 수 있다며 직접 확인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서구적 교양주의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미답의 지역에서 이병주는 자신만의 발견을 도모한다.

나는 거기 가서 장수촌만이 아니라 컬럼부스가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발견할 참이었다.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을 둘러 그곳에 사는 사람, 특히 인디오들의 애환을 살펴볼 작정도 했다. 생명이 스스로를 유지하기에 지리와 기상과 정치에 갖가지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만화경적 현상은 안데스 산맥보다도 거창하고 아마존 강보다도 신비로울 것이었다.<sup>21)</sup>

19) 이병주, 『인간이란 필폐로 끝나는 갈대』,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앞의 책, 35쪽.

20) 이병주, 『호사스런 폐허의 매력-1971 로마 1-』, 위의 책, 203-204쪽.

나이체가 비행기를 타고 안데스를 넘는 체험을 가졌더라면, 아니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는 체험을 가졌더라면, 그의 사상엔 다소의 변질이 있었을 것이 아닐까 하고 그의 <고소의 사상>은 알프스도 최고봉이 아닌 기껏 해발 2천미터 될까말까한 산의 중턱에서 가꾸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의 비상의 논리는 알프스의 정상을 우러러보는 독수리의 관념에 불과했다. 나이체 당시의 과학은 순수한 수학의 형태로 고고해 있었을 뿐, 그 현세적인 실적은 이를 앞잡아 볼 수도, 깡그리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sup>22)</sup>

나는 백세 노인을 만나기에 앞서 그 밤바란 나무를 보아들 작정을 했다. 여태까지 내가 읽은 책들이 엉터리였다는 실증을 잡아 놓고 볼 셈이었다.<sup>23)</sup>

이병주는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이 “어딜 가나 인생이 있다는 것. 인생은 백인이건 흑인이건, 귀인이건,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운명을 살고 있다는 것. 나라에 따라 인종에 따라 풍습이 약간씩 다르지만 희노애락으로 집약되는 생활의 내용에 있어선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이 많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 생노병사하는 일생에 있어서 세계는 하나라는 것에 대한 강한 인식이었다.”<sup>24)</sup>고 밝히고 있다. 교양으로서의 세계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학습하면서 이병주가 얻은 결론은 인간이 가진 동질성이다. 그 동질성을 인식한다면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계에 필요한 것은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주의였으며 이병주는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뉴욕을 든다.

그런데 드디어 세 번째, 두 달 가까이를 그곳에서 지내면서 뉴욕은

21) 이병주, 『에쿠아도르 장수촌 빌카밤바를 찾아』,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앞의 책, 125쪽.

22) 이병주, 『안데스 산맥을 넘으며』, 위의 책, 127쪽.

23) 이병주, 『밤바 나무가 있는 계곡』, 위의 책, 179-180쪽.

24) 이병주, 『책머리에』,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앞의 책.

나의 도시란 걸 실감했다. 뉴욕은 미국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의 수도란 인식을 동시에 가졌다. 어떤 인종이건 자기가 속한 인종 때문에 엉뚱한 소외의식 같은 것을 주는 도시가 있다. 어느 국적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흑인은 흑인대로 황인은 황인대로 활개를 펴고 사는 곳이 그 곳이다. 모두들 바쁘기 때문에 남의 일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분수를 넘는 욕망만 갖지 않으면 얼마간의 돈으로 왕후처럼 살 수가 있다.<sup>25)</sup>

코스모폴리탄이고자 하는 이병주에게 인종이나 국적을 상관하지 않는 뉴욕은 삶의 터전으로 가장 적당한 곳이다.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세계시민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다가온 것은 인종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뉴욕조차도 인종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기도 한다.<sup>26)27)</sup> 그러나 이병주에게 뉴욕은 인정이 남아 있는 곳이며 예술가들의 열정이 살아 있는 곳이다. 동성연애자들의 데모와 그들을 비

25) 이병주, 『뉴욕의 굴맛』, 위의 책, 67쪽.

26) “켈리의 덕택으로 뉴욕의 일주일은 화려한 휴일이 되었다. 그러나 켈리로선 유색인종과의 교제가 적잖게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중략) 어느 날 밤 켈리는 이런 말을 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뉴욕은 비교적 자유스럽지만 결국 미국의 도시예요. 나는 유색인을 차별하는 의식은 손뚱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색인을 차별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의식마저 버릴 순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니까 달리 생각하진 마세요.”

나는 켈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차별의식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고 하고 도별로 차별의식이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병주,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앞의 책, 289-290쪽.

27) “뉴욕은 인간에 관한 것이면 뭐든 허용하지 않곤 배겨내지 못하는 곳이라고 보았다. (중략) 청교도와 갱의 양극으로부터 미국은 오늘날의 미국과 뉴욕을 만들었다. 그러고보니 한창 치열한 흑백 인종간의 알력도 미국의 흠이 아니라 미국의 장점인 것이다. 거대한 자원과 거대한 정력을 가진 나라가 그러한 모습도 없었으면 발전을 정지하고 퇴폐의 일로를 걸든가 문로 주의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폐쇄하든가 레닌의 도식 그대로 인빈시블한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완전노정했든가 했을 것이다.”, 이병주, 『조물주를 놀라게 한 창외와 폐기<미국>』, 위의 책, 244-245쪽.

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제4막’이라는 식당에 모여든 극장 관계자  
사람들과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병주는 뉴욕에서 소  
수자와 주변인들이 주역이 되는 광경을 목격한다.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연극은 대강 3막으로 끝납니다. 3은 무대에서,  
4막은 이곳에서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모여드는 사람들은 대개 무대 뒤  
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중략)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 4막에  
서 주역이 되는 거죠.”<sup>28)</sup>

뉴욕을 배경으로 쓴 소설 『제4막』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제3막까지가 정통적인 연극이라면 지금 너와 나는 확실히 제4막적  
등장 인물이다. 지금 너는 씨의 운명도 제4막적인 고비에 이른 모양이고  
동성 연애를 찬양하는 데모가 있는 미국도 제4막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sup>29)</sup>

이병주는 이 소설에 조국이 러시아에 강점당해 뉴욕으로 피난 온 에  
스토니아인을 등장시킨다. ‘나’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었던 선량한 이들은 에스토니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  
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이병주에게 뉴욕은 망명자들의 피난처이며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이들도 포용하는 휴머니즘적 공간으로 각인되어 있  
음을 파악할 수 있다. 코스모폴리탄 이병주에게 뉴욕은 자신의 세계시민  
주의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28) 이병주, 『뉴욕의 『제4막』<미국>』, 위의 책, 1979, 75쪽.

29) 이병주, 『제4막』, 『마술사』, 한길사, 2006, 201쪽.

### 3. 세계시민주의자의 형태 - 『미완의 극』

이병주의 『미완의 극』에는 세계시민주의자의 모습이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 이스라엘, 홍콩을 넘나드는 이 소설에서 이병주는 세계시민주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제인 인종 차별의 이데올로기에 천착한다. 인종 차별과 파시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고민한다.

“나치스는 그랬다고 치고, 어째서 전 세계는 그런 인종 정책이 시작되었을 때 학살의 현장은 감추어져 있어도, 그 정책의 선전은 공공연했는데 왜 모르는 척했을까요? 어째서 세계의 대부분이 나치스의 간접적 공범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있게 한 일종의 기류 같은 것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 기류가 언제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모른다, 하는 것이 나의 의견입니다.”<sup>30)</sup>

역사가 부조리한 방향으로 폭주할 때 그것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병주가 소설가가 된 이유다.<sup>31)</sup> 그는 『미완의 극』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한 그가 내세운 인물이 ‘나’와 유한일이다. 두 인물은 “세계의 수도”, 뉴욕에서 조우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서사 내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인다. 이병주의 시선은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두 인물의 주장 모두 세계시민주의자 이병주의 의견인 것이다.

‘나’는 소설가다. ‘나’는 소설이 세계시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

30) 이병주, 『미완의 극』(上), 소설문학사, 1982, 41쪽.

31) “진실이 그냥 그대로 통하는 세상이면 소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는가. 뭔가 꾸밈이 없고선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는 슬픈 인식이 소설가의 함수로 되고 그것이 소설의 작법으로 된다.”, 이병주, 『프로로그』,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 적 기행』, 앞의 책, 16-17쪽.

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의 지향점은 분쟁을 지양하는 “사해 동포주의”에 있다. 반전주의자이며 니힐리스트로 니힐리즘을 이해하는 것이 세계 국가를 이룩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도해야 한다. 폭력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킬 뿐이며 새로운 폭력을 낳는 길이라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고도가 1만 피트쯤 더 높이 되면 코리어의 산하와 재팬의 산하는 꼭 같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고 보면 꼭같아지는 지구에 살면서 이 나라는 이렇고, 저 나라는 저렇다, 하는 따위의 전색이 나는 싫은 겁니다.”

“이를테면 사해 동포주의다, 이거로구먼요.”<sup>32)</sup>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발생합니다. 세계가 한 나라로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국가는 이루어질 희망이 거의 결정적으로 없습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옳은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 근본을 따지면 이유가 나타납니다. 소설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노력이라고 할까요?”<sup>33)</sup>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니힐리즘을 이해했을 때, 그 때 세계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두드러진 악은 허무주의를 이해할 수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들 자기가 반드시 죽을 사람이란 걸 자각하고 있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데 그처럼 엄청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철저히 되면 전쟁이 일어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나는 니힐리즘 대찬성입니다.”<sup>34)</sup>

“역사의 여과 작용은 비정한 겁니다.” (중략)

“그 비정을 보상하는 것이 문학입니다.” (중략)

32) 이병주, 『미완의 극』(下), 소설문학사, 1982, 51쪽.

33) 이병주, 위의 책, 84쪽.

34) 이병주, 위의 책, 85쪽.

“그와 같은 존재 이유를 가진 문학은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살인 행위 또는 폭력 행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용서하지 않는됐자 비둘기의 눈으로 사자의 싸움을 보는 격이겠지만.”<sup>35)</sup>

서사의 초점은 유한일에게 가 있다. ‘나’의 제자였던 유한일은 외국의 차관을 한국에 들여오는 로비스트 혹은 사업가이면서 이스라엘 정보국과 협력하면서 세계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다. 주요 서사는 홍콩에서 실종된 배우 윤숙경에 대한 것이다. 윤숙경은 유한일의 집념의 대상으로 그녀의 실종 사건 배후에 그가 있다. ‘나’는 유한일과 윤숙경 그리고 유한일을 돕는 렘스도프와 교류하며 이들의 사상과 행동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렘스도프는 유한일의 생각에 공감하며 그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인물로, ‘나’에게 유한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자신과 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한다. 그녀에 의하면, 유한일은 세계 연방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업을 통해 돈을 모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휴머니즘을 철학으로 가진 조직”<sup>36)</sup>을 동원하여 활동하고 있다.

유대인이자 미국인인 렘스도프와 유한일은 복수심으로 의기투합되어 있다. 렘스도프의 어머니는 게슈타포에게 붙들려 고통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 국가는 박해 받았던 유대인들이 과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렘스도프는 어떠한 폭력도 마다하지 않으며, “히틀러에게 복수하기 위해선 히틀러 이상으로 잔인해야”<sup>37)</sup> 된다고 주장한다. “철저한 복수의 끝에만야만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날 거라고 믿”<sup>38)</sup>는다. 그러한 중에 발생하는 무고한 죽음에 대해 질문하는 ‘나’에게 그녀는

35) 이병주, 위의 책, 214쪽.

36) 이병주, 위의 책, 153쪽.

37) 이병주, 위의 책, 216쪽.

38) 이병주, 위의 책, 216쪽.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한다.

유한일은 재벌의 사생아로 어머니가 기생이었다. 아버지의 외면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윤숙경은 그의 첫사랑이었으나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한일에게 가족과 윤숙경은 좌절과 고통을 주는 대상이었다. 그는 성공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했다. 렘스도프와의 만남은 그러한 그에게 구체적인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 유대인의 역사는 굴곡 많은 한국의 역사와도 닮아 있었고, 팔레스타인과 대치하며 척박한 땅을 일궈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북한과 대치하며 가난에서 벗어나보려는 한국의 상황이 닮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한일은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기록한 프랑클의 『밤과 안개』를 읽고 유대인의 복수에 동참하기로 한다. 유한일은 이스라엘과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종 문제에서 벗어난 세계 국가를 건설하고자 목표로 한다. 그 방법이 렘스도프와 같이 필요하다면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나’는 유한일과 수없이 논쟁한다.

“요컨대 앞으로의 세계 경략에 있어선 동경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럼 자넨 세계 경략에 착수하고 있다는 얘긴가?”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뭔데?”

“첫째,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데 있는거죠. 둘째,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가 생존하는데 있어서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는 거죠. 셋째, 세계 연방이 달성되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나라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강한 발언권을 가질 때, 세계 연방의 기틀이 잡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신념입니다.”<sup>39)</sup>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돈키호테의 제자가 될진 모르지만요. 살인은 나쁘다고 설법하고 있는 사람들

39) 이병주, 위의 책, 219-220쪽.

덕분에 히틀러나 스탈린은 놈들의 세위를 떨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살인이란 방법을 그들이 독차지하게 되었으니까요. 히틀러나 스탈린이 평화적인 설득에 호락호락 응하겠습니까?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폭력을 능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폭력일 뿐입니다.” (중략)

“천지가 개벽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인간성에 위배되는 행동은 옳지 못한 것이고, 아무리 불가피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옳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즐겨 극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넣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옳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물론 동기도 있을 것이고, 그럴만한 이유도 있었을 테지만 아무래도 나는 자네의 행동을 납득할 수가 없구나.”<sup>40)</sup>

“우리는 공동 목표를 세웠죠. 세계 정부의 수립입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그 무렵 『어내터미 오프 피스』란 책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갈 길은 세계 정부의 수립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미워하는 일체를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고 된 거지요. 일체의 기존 질서, 일체의 애증을 불살라 버린 복수전이 끝난 폐허 위에서만이 세계 정부는 수립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념입니다. 이상은 마하트마 간디와 일치하는데 쓰는 수단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중략) 모두들 테러리스트라고 하면 예사로 나쁘게 말합니다. 누구 한 사람 테러리스트의 마음을 짐작해 보려고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안 중근, 윤 봉길 의사는 찬양한다고는 합니다. 인류의 양심을 테러리스트에게 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한 마디 끼었다.

“자넨 세계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세계 정부의 불가능을 논증하고 있구나. 세계 정부는 선악, 애증의 피안에서 일체의 복수심을 타협과 화합으로 조절한 터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자네 말대로 하면 세계는 무한한 복수전의 연속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세계 정부는커녕 인류의 종말이 있을 뿐이다. 테러리즘은 어떠한 명분으로써도 용납될 수가 없다. 무한한 투쟁의 연쇄가 될 뿐이니까.”

“무한한 건 아니죠.”

“어째서?”

“일체의 반인간적인 것은 절멸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골고루 보급

40) 이병주, 위의 책, 223쪽.

되었을 때, 그 때 끝이 날 테니까요.”

“그것이 언제가 되겠어?”<sup>41)</sup>

이병주는 복수의 문제에 대해 데뷔작인 『소설·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고민해 왔다. 부조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가 이병주 소설의 화두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 속에는 자신도 속해 있다. 누구보다 이병주는 복수를 통한 위신의 회복을 욕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병주는 역사의 흐름을 진실이 통하는 방향으로 잠시라도 제어했던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가 그 결과물이다. 이상을 구체적 실현에 옮겨 역사를 수정하겠다는 테러리스트와 소설을 통해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소설가의 의도는 닮아 있다. 하지만 이병주가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이며 세계시민주의 역시 이를 통째서면 실현 가능하다는 ‘진실’이다.<sup>42)</sup>

#### 4. 휴머니즘적 공동체 구상 - 『허드슨강이 말하는 강변 이야기』

이병주가 세계시민주의를 구상했던 뉴욕에서의 경험은 두 편의 소설을 낳는다. 『제4막』과 『허드슨 강이 말하는 강변이야기』다. 그 중 『허드슨강이 말하는 강변 이야기』에는 이병주의 세계시민주의적 이상을 실현

41) 이병주, 위의 책, 228-229쪽.

42) 이병주의 테러에 대한 관심은 소설뿐만 아니라 『테러의 계절』이라는 수필에도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이병주는 테러의 원인이 복수에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의 “철학은 종래의 가치체계에 대한 단호한 거부로서부터 시작했다”고 논의한다. 이병주, 『테러의 계절』, 『백지의 유혹』, 남강출판사, 1973, 186쪽. 이병주는 세계 각지에 테러가 일어나는 까닭은 그만큼 세계 곳곳에 모순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인도주의의 정신을 강조한다.

하는 소박한 공동체가 등장한다. 이 소설은 전형적인 통속 소설로 이병주의 다른 소설에 비해 서사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주가 세계시민주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데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주인공 신상일은 아내와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기꾼을 찾기 위해 뉴욕에 온다. 신상일의 집념 역시 복수에 기반하고 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죽음만이 복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과의 섭리가 어긋나는 것은 평범한 인생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며 이들의 억울함 역시 해결의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꼭 직접적인 복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신상일은 사기꾼을 잡기 위해 한국을 떠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뉴욕에 오는 것으로 아내와 딸의 죽음과 거리두기가 가능해지고 내적 갈등이 어느 정도는 진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신상일은 뉴욕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기꾼이 죽었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 복수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신상일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휴머니스트다. 만약 사기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잔인한 복수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첫 만남에서 잘 곳이 필요하다는 흑인 여성, 헬렌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이 때문에 이후 둘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친밀한 관계가 된다. 그는 낸시 성도 만난다. 신상일이 한국에서 기자였을 때 낸시 성의 스캔들을 인도적 동기에서 기사화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인터뷰 때문에 한번 만났던 낸시 성이 “사물을 보는 견식이 예민할 뿐만 아니라 착실하다는 인상”<sup>43)</sup>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신상일은 그 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 보려다 사기를 당하고 불행한 일들을 겪었다. 그래도 그는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돈을 얼마라도 갚아야 한다

43) 이병주, 『허드슨 강이 말하는 강변이야기』, 도서출판 국문, 1982, 82쪽.

고 인식하고 있는 양심적인 인물이다. 비자 연장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신상일은 독거 노인인 메아리를 유혹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도왔고 그녀의 죽음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장례를 돕기도 한다. 유산 상속에 유리한 거짓말을 해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메아리 동생의 간청도 양심상 거절한다. 신상일은 인종에 대한 편견도 없다. 헬렌이 “냉혹하지 않은 백인 여자는 본 일이 없는 걸요.”<sup>44)</sup>라는 말하면 “그러나 그건 편견이야. 사람은 편견을 가져선 안 돼!”<sup>45)</sup>하고 타이른다.

뉴욕에 만연해 있는 인종에 대한 편견은 작품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흑인과 황인은 차별을 받으며, 동족들끼리도 편견으로 인해 불화한다. “국민성”이라는 편견 역시 인종에 대한 편견과 동일하게 차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신상일을 인종 차별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민성 담론에 의한 편견에 대해서도 반발한다.

『내가 뭐 뉴요크주 상원의원이라도 되나? 그런 걸 연구하고 따지게. 뉴요크의 경찰은 오리엔탈이나 니그로나 푸에리토 리코인의 시체는 어디서 나오든 관심 따윈 조금도 갖질 않아. 그런 점에 착안해서 맥킨터는 그의 즐거움으로 오리엔탈을 쓰는거야.』<sup>46)</sup>

『그러니까 내 충고를 똑똑히 들어둬요. 앞으로 백인 여자를 상대할 때가 있으면 철저히 가면을 쓰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은 본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니까요. 백인 여자들은 자기들만 제일인줄 알아요. 흑인이나 오리엔탈은 원숭이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헌데 그들은 원숭이는 좋아하거든요. 그 까닭을 나는 알았어요. 원숭이는 말을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취급해도 항의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 까닭에 우리를 원숭이보다 나쁘게 치는 거예요.』

신상일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백인의 천대를 받고 살아온 체험이

44) 이병주, 위의 책, 89쪽.

45) 이병주, 위의 책, 89쪽.

46) 이병주, 위의 책, 45쪽.

말하고 있는 것을 반박할 구체적인 근거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sup>47)</sup>

「그러나 내가 사이에 들면 될 일도 안될른지 몰라요. 어떻게 드락스 토어나 공원 같은 데서 말예요, 백인을 사귀세요. 그래 갖고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미스터 신은 인상이 좋으니까, 혹시 청을 들어줄지 몰라요.»<sup>48)</sup>

「되도록이면 교포사회에 접근하지 않는게 좋을 겁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적발되는 것은 교포 가운데 밀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족끼리 그런 치사한 짓을 하는 것은 한심하죠. 아무래도 우리들의 국민성을 철저히 고쳐야 하나 봐요.»

국민성을 들먹일 때마다 신성일은 일종의 반발을 느낀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

「천의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사람들을 두고 국민성 전체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처럼 미국의 국법을 어기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런데 내가 이꼴이 된 건 결코 국민성 때문이 아닙니다.»<sup>49)</sup>

그런데 뉴욕에는 이러한 인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함에도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아간다. 그 중 신상일이 좋아하는 그리니치 빌리지는 “유태인·폴란드인·우크라이나인들의 이민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푸에르토리코인·흑인 그리고 히피족들이 혼합상태를 이루고”<sup>50)</sup> 있는 곳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펼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보살피며 생존한다. 신상일은 친절한 백인 화가 덕분에 낸시 성을 만날 수 있었다. 낸시 성은 유고슬라비아인 화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었으며, 쿠바의 망명인들을 먹여 살리는 식당에서 일거리를 주어 생계를 유지한다. 이 쿠바

47) 이병주, 위의 책, 90쪽.

48) 이병주, 위의 책, 99쪽.

49) 이병주, 위의 책, 109쪽.

50) 이병주, 위의 책, 255-256쪽.

인들은 낸시 성이 식당을 열어 돈을 벌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거짓 소문으로 한국을 떠나야했던 낸시에게는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많은 뉴욕이 서울보다 훨씬 인간적인 공간이다. 이 때문에 낸시는 늘 미국을 칭찬하고 “뉴욕엔 나쁜 사람도 많지만,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sup>51)</sup>라고 강조한다.

신상일은 살끔 감동했다. 천재라는 것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격성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에 이르렀다. 아름다운 것에 민감한 마음, 훌륭한 것에 감동하는 마음, 착한 일을 존경하는 마음, 그것이 정열이 되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편달하며 끌고갈 때, 그때 천재가 출현하는 것이 아닐까.<sup>52)</sup>

『우리가 오늘 비참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진 않았어. 우리는 구별과 차별을 받아도 우리편에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다. 이 세상이 확실하게 아름다운 것은 이런 비참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만큼, 우리는 축복하는 마음을 잊어선 안되는 거야.』-낸시<sup>53)</sup>

신상일은 이러한 낸시를 보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인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을 깨닫는다.<sup>54)</sup> 그는 낸시를 천재라고 칭한다. 이병주는 그의 작품 속에서 천재를 자주 등장시킨다. 부조리한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을 이 천재에게서 찾는데, 『드골과 사르트르』에서는 드골이 한국에 있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칭송한다.<sup>55)</sup>

51) 이병주, 위의 책, 136쪽.

52) 이병주, 위의 책, 141쪽.

53) 이병주, 위의 책, 153쪽.

54) “『인간이란 백번 좌절할망정 착한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백번 실패를 하더라도 보다 아름다운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곤란이 있어도 모두들 보다 화락하게 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다.』”, 위의 책, 222쪽.

55) 이병주, 『드골과 사르트르』,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앞의 책, 302쪽.

『미완의 극』에서는 “집념이 천재를 만든다.”<sup>56)</sup> “한국인의 최대 결점은 집념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sup>57)</sup>며 천재를 갖지 못해 불행해진 한국의 역사를 안타까워한다. 이러한 이병주는 이 소설에서 천재를 휴머니즘을 가진 인물로 정의 내린다. 신상일과 헬렌 그리고 낸시는 인종을 초월하여 인간애를 바탕으로 꾸려진 공동체를 구성하여 삶을 연장해 간다. 어느덧 신상일은 그들의 공동체가 있는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고향을 느끼게 된다.

이병주는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인간을 자유를 가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인종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시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링컨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난다.

『그는 해방운동을 추진한 인물이기도 하며 동시에 합중국의 통일에 이바지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말했다. 『노예에게 자유를 줌으로써만이 자유인에게 자유를 주게 되는 것이다』고, 톨스토이는 그를 위대한 개인주의자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위대한 인물을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로 격하시켰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아브라함 링컨은 결코 개인주의자가 아니며, 위대한 개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미국인의 상상력이 미치는 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전적이며, 가장 원형적인 개인인 것이다.』<sup>58)</sup>

“이데올로기의 신봉자”가 아닌 개인이기에 링컨은 인종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역사를 썼다. 한 인간을 내셔널리티나 네이션, 인종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 인식한다면 세계시민주의가 실현되고 세계 공동체가 가능해질 것이다. 작가는 뉴욕을 흐르는 허드슨강을 빌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원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사랑이다...”<sup>59)</sup>라는

56) 이병주, 『미완의 극』(上), 앞의 책, 17쪽.

57) 이병주, 위의 책, 18쪽.

58) 이병주, 『허드슨 강이 말하는 강변이야기』, 앞의 책, 177쪽.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5. 결론

이병주의 세계 기행문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과 장편 소설 『미완의 극』, 『허드슨강이 말하는 강변 이야기』에는 세계를 지향했던 교양주의자 이병주의 시선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의 세계시민주의는 교양주의자로서 당연한 결과물이었으나 이 데올로기 문제로 극심한 피로 상태에 놓여 있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주장을 내세운 작가는 별로 없었다. 그는 자신이 바라보았던 세계가 서구에 국한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반성한다. 또한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세계가 더 이상 분쟁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으며, 이에 제기될 수 있는 과거의 역사로 인해 발생한 복수의 문제와 인종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고민과 해결, 그에 따른 구체적 구상은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미완의 극』, 『허드슨강이 말하는 강변 이야기』로 표상된다.

다만, 이병주는 분열되지 않는 세계를 지향했지만, 시대 정황과 개인적 경험상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의 글 속에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일본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기도 하고 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 대한 찬양에 가까운 긍정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병주가 “복수란 명분,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감정 이상으로 강력한 주의 주장이 있을 수 있을까.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을까.”<sup>60)</sup>라고 토로한

59) 이병주, 위의 책, 264쪽.

60) 이병주, 『세상에 그럴 수가』,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서당, 1988, 158쪽.

것은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병주는 복수와 휴머니즘 사이에서 휴머니즘을 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어설픈 유럽인”이기에 유럽에 대해서도 무조건 긍정적이다. 여성관도 지극히 남성중심주의적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한다. 인간을 교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분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보인다. 그의 대화는 지식에 대한 교환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지식의 정도를 확인하고 상대방을 평가한다. 영웅에 대한 집착 역시 어쩔 수 없는 엘리트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 그의 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한계는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서사 속에는 논쟁과 대화가 빠지지 않는다. 객관화와 이를 통한 성찰의 태도는 이병주 서사의 장점이다. 그의 한계 역시 새로운 성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김종희, 「이병주 문학의 역사의식 고찰」, 『한국문학논총』 제57집, 한국문학회, 2011, 123-144쪽.
- 안경환, 「이병주와 황용주-작가의 특권과 특정」, 김윤식·김종희, 『이병주 문학의 역사와 사회 인식』, 바이북스, 2017.
- 이병주,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한길사, 2006.
- \_\_\_\_\_,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위한 문학적 기행』, 서당, 1988.
- \_\_\_\_\_, 「인간(人間)에의 길」, 『생각을 가다듬고』, 정암, 1985.
- \_\_\_\_\_, 「제4막」, 『마술사』, 한길사, 2006.
- \_\_\_\_\_, 「췌부채」, 『소설·알렉산드리아』, 한길사, 2006.
- \_\_\_\_\_,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 한진출판사, 1979.
- \_\_\_\_\_, 『백지의 유혹』, 남강출판사, 1973.
- \_\_\_\_\_, 『미완의 극』(上/下), 소설문학사, 1982.
- \_\_\_\_\_, 『허드슨 강이 말하는 강변이야기』, 도서출판 국문, 1982.
- 이정석, 「학병세대 작가 이병주를 통해 본 탈식민의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33집, 한중인문학회, 2011, 111-133쪽.
-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영원한 평화』, 아카넷, 2013.
- 추선진, 「이병주의 『별이 차가운 밤이면』에 나타난 전쟁 체험과 내셔널리티」, 『국제어문』 60집, 국제어문학회, 2014, 23-35쪽.
- 허병식, 「한국근대소설과 교양의 이념」,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 과메 엔터니 에피아, 실천철학연구회 역, 『세계시민주의』, 바이북스, 2008.

<Abstract>

## Liberal cosmopolitanism in Lee Byung Joo literature

Chu, Sun-Jin\*

This study highlights Lee Byung-joo's literature as a feature of cosmopolitanism during the Cold War era. Lee Byung-joo realizes the limits of ideology and aims to live a life away from ideology. The orientation of Lee Byung-joo becomes concrete as a liberal cosmopolitanism based on universal brotherhood. Lee Byung-joo's *Journey to the World*, *Wind, Walking, Voice and literary journeys for lost time and the unfinished play*, and *the river of the Hudson River* are based on the views of the state's culture. His cosmopolitanism was a natural result of the liberal arts, but few writers made such assertions in Korean society at the time when he was in a state of extreme fatigue over ideological issues. He realizes and reflects on the fact that the world he was looking at was limited to the West. It also wanted the world to be a conflict-free community based on humanism, and addresses the plural issues created by the history of the past so that they could be raised. His agony and solution, along with his concrete ideas, are expressed in the words of *Wind, Walking, Voice and literary journeys for lost time and the unfinished play*, and *the river of the Hudson River*.

---

\*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Lee Byung-joo, journey to the world, Liberalism,  
cosmopolitanism, humanism, ideology

- 논문접수 : 2018년 3월 27일
- 심사완료 : 2018년 4월 7일
- 게재 확정 : 2018년 4월 16일

